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소학(小學)』의 우정론 - 『교우론(交友論)』과 비교하여*

엄국화(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II. 『명심보감』 「교우편」과 『교우론』

1. 구이경지(久而敬之)
2. 무의지봉(無義之朋)
3. 급난지봉(急難之朋)
4. 화(化), 지심(知心), 군자지교(君子之交)

III. 『소학』 「붕우지교」와 『교우론』

1. 책선(責善), 선도(善道)
2. 익자삼우(益者三友)
3. 우기덕야(友其德也)
4. 이우보인(以友輔仁), 형제(兄弟), 전교(全交)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10>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98)

• ABSTRACT •

**Myeongsimbogam (明心寶鑑) and Sohak (小學): A Comparative Study
with *on Friendship* (交友論)**

Research Fellow, Uhm, Kook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key themes of the traditional East Asian discourse on friendship by comparing the friendship theories presented in the “On Friendship” (Gyoupyeon, 交友篇) section of the *Myeongsimbogam* (明心寶鑑) and the “Friendship Between Friends” (Bungujigyo, 朋友之交) section of the *Sohak* (小學) with Matteo Ricci’s *on Friendship* (交友論). While the *Myeongsimbogam* originally integrated Confucian, Buddhist, and Daoist teachings, it came to be read predominantly within a Confucian framework after the mid-Joseon period. Meanwhile, the *Sohak*, an introductory Confucian ethics text grounded in the Five Cardinal Relationships (五倫), was held in high esteem by Sarim (士林) scholars in Joseon. These two work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Joseon’s discourse on friendship, whereas Ricci’s *on Friendship* introduced new stimuli by translating Western discussions on friendship into the East Asian context.

Focusing on key concepts such as reverence (敬), righteousness (義), admonishing goodness (責善), guiding toward the good (善道), virtue (德), and benevolence (仁) that appear in the *Myeongsimbogam* and the *Sohak*, 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them with corresponding passages in the *on Friendship*.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traditional discourse on friendship emphasizes a morally grounded, enduring relationship—cultivating virtue through reverence and righteousness and making one’s true nature evident especially in times of hardship. This perspective aligns closely with the values expressed in the *on Friendship*, thereby highlighting a point of convergenc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friendship discourses. Ultimately, this study reaffirms friendship as a universal ethical ideal rooted in human nature.

Key words: Myeongsimbogam (明心寶鑑), Sohak (小學), on *Friendship* (交友論), Friendship, Sajepyeon (思齊篇)

I. 들어가는 말

『교우론(交友論, 1595)』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가 서양 고전에서 우정을 논하는 100개의 문장들을 선별하여 번역한 책이다. 본래는 서양 문명의 산물이었으나 유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동양 우정론의 전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우론』 이전에 동아시아에서도 우정에 관한 문장을 엮어놓은 저술이 있었다. 『교우론』처럼 많은 문장을 실어 단독으로 편찬한 책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저작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명심보감』의 「교우편(交友篇)」과 『소학』의 「붕우지교(朋友之交)」에 수록된 우정에 관한 문장들을 『교우론』과 비교하며 주요 주제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 1393)』은 고려 충렬왕(忠烈王, 1236~1308) 때의 학자 추적(秋適)이 편찬했다고 전해졌지만, 1970년대에 1545년 청주(淸州)에서 발견된 판본(이하 청주본)이 발견되면서 중국 명나라 학자 범입본(范立本)이 편찬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청주본 서문에 범입본이 1393년에 편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1393년에 간행된 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¹⁾ 중요한 것은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비롯한 사림(士林)과 유학자들이 『명심보감』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다.²⁾ 그러나 청주본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에서 통용되던 판본은 초략본(抄略本)이다.³⁾ 청주본에 비해 1/3 정도의 분량인데, 이는 불교적인 문장과 도교적인 문장들을 제외하면서 줄어든 것이다. 원래 『명심보감』은 유교·불교·도교 3교의 사상을 회통하는 서적이지만,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전통

1) 성해준, 『동아시아 명심보감 연구』 (서울: 문, 2011), 〈제2부 각국 『명심보감』의 판본〉 참조.

2) 같은 책, 243.

3) 초략본은 1454년에 나타났다. 범입본, 임동석 옮김, 『초간본 명심보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해제〉 참조.

이 강해지면서, 유교적인 문장들만 취해서 널리 읽히게 된 것이다.

『명심보감』과 더불어 유교의 입문서로 사림과들이 중시했던 『소학(小學, 1187)』은 주희(朱熹, 1130-1200)가 직접 편찬에 관여했다. 중국 고대에 초학자를 위한 교재가 존재하였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희가 문인 유허지(劉清之, 1134-1190)를 통해 사서오경의 문장들을 발췌해서 복원한 것이다. 『소학』의 기본 구조가 되는 오류에 관하여 조선 시대에도 『삼강행실도(1434)』가 세종 때 배포되어 일반 백성들에게도 유교적 윤리가 교육되었다.⁴⁾

『명심보감』과 『소학』은 중국 고대경전의 문장들이 주제별로 재배열되어 초학자들이 공부를 시작하기에 매우 적합했고, 사림이 이 책들을 중시하면서 조선에서는 두 책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율곡 이이(李珣, 1536-1584)는 『격몽요결(擊蒙要訣, 1577)』 4장 〈독서(讀書)〉에서 사서삼경을 읽기 전에 『소학』을 읽을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림과 전통에서부터 『소학』은 매우 중요한 책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직후, 『소학』은 『근사록(近思錄, 1175)』⁵⁾과 함께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때 기묘명현 안처순(安處順, 1392-1434)은 「사제편(思齊篇)」을 저술하여 금서가 된 책들을 대체하고자 했다.⁶⁾

안처순은 1518년에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구례현감으로 내려갔고, 이듬해에는 중종에게 건의하여 호남지역 최초로 『근사록』을 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안처순은 기묘사림들을 찾아다

4) 『삼강행실도』 이후 장유(長幼)와 봉우 사이의 관계를 다룬 『이륜행실도』가 등장한 것은 중종 13년(1518)인데,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해에 김안국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 1797년 정조의 명에 의해 『오륜행실도』로 합쳐되어 편찬되었다.

5) 『근사록(近思錄, 1175)』은 주희가 여조겸과 함께 편찬한 책으로, 북송의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네 선생 문집의 문장들을 편집한 책이다.

6) 엄국화·안재원, “안처순(安處順)의 『근사록(近思錄)』과 『사제편(思齊篇)』,” 『열상고전연구』 83(2024) 참조.

니며 돌보는 한편, 강학처로 사제당(思齊堂)을 세우고, 교육을 위해 「사제편」을 저술하였다. 기묘사림 우정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안처순의 대표적 저술 「사제편」 하권에는 〈붕우〉 편이 있다. 우정에 관련된 주제로 『논어』에서만 세 개의 문장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⁷⁾

증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돕는다.”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되어도 공경하는구나.”

子曰，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

「사제편」의 〈붕우〉의 첫 번째 문장 “군자이문회우(君子以文會友)”는 ‘우’가 직접 언급되어 있으므로, 『논어』 「학이」 편 1장의 “유봉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만큼이나 벗 또는 우정에 관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소학』 「붕우지교」에서도 11개 문장 중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다. 두 번째 문장 “안평중선여인교(晏平仲善與人交)”은 『명심보감』 「교우편」의 8개⁸⁾ 문장 중에서 세 번째 문장인데, 사서 중 유일하게 『논어』에서 인용된 문장이다. 안처순은 임진왜란 이전 인물이기에 청주본을 참조

7)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논어』 「향당」 편 14장이다. “친구가 죽자 그를 둘러보낼 곳이 없다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집에 빈소를 차리라.’라고 하셨다. 친구의 선물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낸 고기 이외에는, 비록 수레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朋友死，無所歸曰，於我殯。朋友之饋，雖車馬，非祭肉，不拜.)” 엄국화, “기묘명현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우정론,” 『경학』 7(2024) 참조.

8) 초간본 『명심보감』에는 12개의 문장으로 추정되나,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널리 유통되는 〈초략본(抄略本)〉의 8개 문장을 기준으로 삼았다. 범입본, 임동석 옮김, 『초간본 명심보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198-205 참조.

했을 터인데, 『명심보감』 「교우편」에서 유일한 사서의 문장이기에 인용하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위에 소개한 안처순의 「사제편」 〈붕우〉의 두 문장에 착안해서, 후대에 편찬된 『교우론』의 번역에 미친 영향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명심보감』과 『소학』에서 각각 6개의 주제들을 선정했고, 이것들은 또다시 3개의 큰 주제와 3개의 작은 주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교우론』의 문장들을 소개하며, 『교우론』의 주제들을 재구성해 보여주고자 한다.⁹⁾

『명심보감』 「교우편」	1. 구이경지(久而敬之)					
	2. 무의지봉(無義之朋)					
	3. 급난지봉(急難之朋)					
	4. 화(化)	5. 지심(知心)	6. 군자지교(君子之交)			
『소학』 「붕우지교」	1. 책선(責善), 선도(善道)					
	2. 익자삼우(益者三友)					
	3. 우기덕야(友其德也)					
	4. 이우보인(以友輔仁)	5. 형제(兄弟)	6. 전교(全交)			

II. 『명심보감』 「교우편」과 『교우론』

1. 구이경지(久而敬之)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기를 잘하다. 오래되어도 공경

9) 이탈리아 학자 미니미(Mignini)의 주제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정의 본질(essenza), 2) 우정의 목적(fine), 3) 우정의 이득(beneficio), 4) 우정의 근본(fondamento), 5) 우정의 특성(proprietà, 특성들로는 진실됨(sincerità), 충실함(fedeltà), 무욕(disinteresse), 나눔(condivisione)의 네 가지), 6) 우정의 보호(difesa, 우정이란 값진 것이니만큼 벗의 선택과 유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 이원창 석사학위 논문, 「우정에 관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적 이해」, 32 재인용.

하는구나.”¹⁰⁾

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路遙知馬力, 日久見人心.

『명심보감』 19편 「교우편(交友篇)」의 세 번째 문장과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이다. 먼저 세 번째 문장은 『논어』 「공야장」 편 16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명심보감』 「교우편」의 8개 문장 중 유일하게 사서에서 인용되었다.¹¹⁾ 공자는 안평중(晏平仲)에 대해 ‘사람과 사귀기를 잘한다(善與人交)’고 평가했는데, 그 핵심은 ‘구이경지(久而敬之)’ 즉, ‘오래되어도 공경했다’라는 사실이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장은 『사림광기(事林廣記)』에서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도 ‘날이 오래 지나야(日久)’라며 사람의 마음을 보는 기준으로 ‘오래된(久) 시간’을 삼았다. 두 문장은 우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오래된 시간’을 지적하며, 오래되어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참된 우정이고, 오래 지나야 진정한 우정을 볼 수 있음을 말한다. ‘경(敬)’이나 ‘구(久)’가 직접 사용된 『교우론』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58. 거짓으로 베풀 대우하면 처음에는 사람을 멋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되어 거짓이 드러날 경우 도리어 베풀어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게 된다. 정성으로 베풀 대우하면 처음에는 다만 혼자 그 마음을 다하지만, 오래되어

10) 성백효 역주, 『명심보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0), 86. 이하 『명심보감』의 모든 번역문은 이 책을 인용한 것이다.

11) 초간본(初刊本)의 12개 문장에서도 사서(四書)에서 인용한 것은 이 한 문장뿐이다. 범입본, 임동석 옮김, 『초간본 명심보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하권 198-205 참조.

정성을 믿게 되면 벗이 더욱 공경하여 따르게 된다.¹²⁾

以詐待友, 初若可以籠人, 久而詐露, 反爲友厭薄矣. 以誠待友, 初惟自盡其心, 久而誠孚, 益爲友敬服矣.

59. 내가 앞서서 가난하고 천하다가 나중에 부유하고 귀하게 되었다면 옛날 사귄 벗을 버려서는 안 되니, 새로운 친구는 내 형세와 이익을 보고 의지하려 들기 때문이다. 내가 앞서 부귀하였다가 나중에 가난하고 천하게 되었을 경우, 예전 사귀던 벗을 믿어서는 안 되니, 새로 사귄 벗이 혹 도의로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벗이 앞서서 가난하고 천하다가 나중에 부유하고 귀하게 되었다면 내가 마땅히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내가 벗을 가까이하려 해도, 벗이 혹 나를 소원하게 대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벗이 앞서서 부귀하였다가 나중에 가난하고 천하게 되었을 경우 내가 마땅히 더욱 공경해야 한다(我當加其敬). 벗이 내가 소원해지는 것을 막아도, 내가 마침내 스스로 소원하게 끝까지 걱정해서다.¹³⁾

58칙에서 ‘오래되어 거짓이 드러날 경우(久而詐露)’와 ‘오래되어 정성을 믿게 될 경우(久而誠孚)’를 들어 우정론에 있어서 ‘오래됨’이 중요한 요소이고, 마지막에는 ‘공경함’을 강조하고 있다. 59칙에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보다는 부귀와 빈천이라는 달라진 상황을 대조하고 있지만, 특히 부귀하였던 벗이 빈천하게 되었을 경우 ‘마땅히 더욱 공경해야 한다(當加其敬)’라고 하며 역시 ‘오래되어도 공경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久)’나 ‘경(敬)’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지만 주제가 유사한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12) 마테오 리치, 정민 역주, 『서양 선비, 우정을 논하다』 (서울: 김영사, 2023), 66. 이하 『교우론』의 모든 번역문은 이 책을 인용한 것이다.

13) 我先貧賤而後富貴, 則舊交不可棄, 而新者或以勢利相依. 我先富貴而後貧賤, 則舊交不可恃, 而新者或以道義相合. 友先貧賤而後富貴, 我當察其情. 恐我欲親友, 而友或踈我也. 友先富貴而後貧賤, 我當加其敬. 恐友防我踈, 而我遂自處于踈也.

22. 벗은 벗에게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아야 할 뿐이다. 진실로 가깝거나 멀거나, 안에서건 밖에서건, 마주 보고 있는지 등을 돌렸는지, 다른 말과 다른 마음이 없어야 한다.

友者於友，處處時時一而已。誠無近遠·內外·面背，異言異情也。

48. 오랜 벗은 아름다운 벗이니 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까닭 없이 새 벗으로 옛 벗을 바꾼다면 오래지 않아 바로 후회하게 된다.

故友爲美友，不可棄之也。無故以新易舊，不久即悔。

75. 새 친구가 오게 하려 힘쓰더라도, 옛 친구에게 잘하지 못함을 경계해야 한다.

務來新友，戒毋諠舊者。

22칙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음(處處時時一)’이 핵심이고, ‘오래되어도 공경한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48칙에서는 마지막에 ‘오래지 않아 바로 후회하게 된다(不久即悔).’라고 했는데, 이 역시 ‘오래된 친구’ 또는 ‘오래된 우정’에 대한 긍정이다. 75칙은 ‘새 친구(新友)’를 만드는 것에도 힘써야 하지만, ‘옛 친구(舊者)’에 대한 공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 무의지붕(無義之朋)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으려 하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지니라.

不結子花，休要種，無義之朋，不可交。

동아시아 유교 윤리전통에서 의(義)는 필수적이다. 당연히 친구 사이에서도 ‘의’는 강조되어야 하는데, 『명심보감』 「교우편」의 여덟 번째 문장은 열매 맺지 않는 꽃의 비유를 통하여 우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열매

가 가리키는 것은 ‘의리(義)’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의리’는 필수적인데, 여기서는 결과로서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교우론』에서는 ‘의리’의 다양한 용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5가지를 소개한다.

31. 친구가 마땅히 서로를 용서함에도 한계가 있다.

友之所宜，相宥有限。

32. 벗이 즐거움을 의로움보다 중시한다면 오래 벗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友之樂多於義，不可久友也。

46. 벗의 직분은 의로움에 이르러 그친다.

友之職，至於義而止焉。

54. 속된 벗이 함께하면 즐거움이 기쁨보다 많지만, 헤어지고 나서는 근심이 남는다. 의로움 벗이 모이면 기쁨이 즐거움보다 많고, 헤어져도 부끄러움이 없다.

俗友者，同而樂多於悅，別而留憂。義友者，聚而悅多於樂，散而無愧。

96.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벗에게 의롭지 못한(非義) 일을 요구했다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내가 구하는 것을 함께 하지 않겠다니, 어찌 다시 너의 친구가 되겠는가?” 그 사람이 말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의롭지 않은 일을 요구하니, 어찌 다시 너의 친구가 되겠는가?”¹⁴⁾

31칙 원문에서는 ‘의(義)’ 자가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마땅하다’를 의미하는 ‘의(宜)’가 나타나는데, 『중용』 20장에서 ‘의(宜)’를 ‘의(義)’라고 풀

14) 昔有人求其友，以非義事，而不見與之，曰：“苟爾不與我所求，何復用爾友乎？”彼曰：“苟爾求我以非義事，何復用爾友乎？”

이하였다.¹⁵⁾ 또한 31칙에는 추가적으로 주석이 달려 있는데, “벗이 혹 죄를 지었을 경우 다만 작게 여겨 포용할 수 있지만, 벗이 의리(義)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크게 여겨 바로 버려야 한다.”¹⁶⁾라며 의리를 범한 벗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96칙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짧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의롭지 못한 일을 요구하는’ 친구와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32칙은 우정에서 즐거움(樂)과 의로움(義)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덕’과 마찬가지로 ‘의리’가 우정에서 ‘즐거움’보다 중시되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에 54칙은 벗을 ‘속우(俗友)’와 ‘의우(義友)’로 구분하면서, ‘기쁨(悅)’보다는 ‘즐거움(樂)’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속된 벗은 근심이 남고, 의로운 벗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대조한다. 46칙은 ‘벗의 직분’을 논하는데, ‘의로움’에 이르러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어의이지언(至於義而止焉)’이라는 문장은 『대학』 1장의 세 번째 강령인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연상시키는데, 그렇다면 의로움의 직분이라는 것은 ‘책선(責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책선’은 13장에서 『소학』과 비교하며 가장 먼저 다룬다.

3. 급난지봉(急難之朋)

술이나 밥을 함께 할 때에 형제간 같은 친구는 천 명이 있으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느니라.

酒食兄弟，千個有，急難之朋，一個無.

앞서 『명심보감』 「교우편」에서 우정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오래됨과

15) 仁者，人也，親親，爲大，義者，宜也，尊賢，爲大.

16) 友或負罪，惟小可容. 友如犯義，必大乃棄.

경건’을, 그다음에 ‘의로움’이라는 전형적인 유교 이념으로 소개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벗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벗의 유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급난(急難)’이다. 일반적으로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제나 가족이 가장 의지할 만하지만, 『교우론』에서는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된 벗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직접적으로 ‘급(急)’이 사용된 문장은 두 개이고,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문장이 한 개다.

5.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진짜 벗인지 가짜 벗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벗의 정이 드러난다. 대개 일이 다급한 때에(事急之際) 참된 벗은 더욱 가깝게 친밀해지고, 거짓 벗은 한층 소원해져서 흩어져버린다.¹⁷⁾

53. 벗의 다급함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不扶友之急，則臨急無助者。

74. 꼭 필요할 때 갑자기 그가 친구가 아님을 알게 되니, 안타깝다!
臨當用之時，俄識其非友也，愍矣。

53칙에서는 ‘다급함(急)’이 선명하게 강조된다. 『명심보감』의 문장과 가장 형식적으로 흡사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내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다급한 벗을 도와야 함을 교훈한다. 74칙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술과 밥을 즐기는’ 상황이 아니라, 친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줄 친구가 없음을 깨닫는 안타까움을 말한다. 5칙 역시 평상시가 아니라 어

17) 時當平居無事，難指友之眞僞，臨難之頃，則友之情顯焉。蓋事急之際，友之眞者益近密，僞者益疎散矣。

려움에 처한 상황이 우정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임을 말한다. 이외에도 주제가 유사한 문장들을 다음과 같다.

14. 한갓 내가 기쁘고 좋을 때 시험해본 것만으로 그 벗을 믿어서는 안 된다.

徒試之于吾幸際，其友不可恃也。

41. 만약 내가 항상 행복하여 재앙이 없다면 친구가 참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如我恒幸無禍，豈識友之眞否哉！

64. 내가 잘나갈 때는 청하면 그제야 오고, 근심스러울 때는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와야 친구라 할 것이다!

我榮時，請而方來，患時不請而自來，夫友哉！

『교우론』에서는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참된 벗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14칙에서는 기쁘고 좋을 때를 기준으로 벗을 신뢰할 수 없다 하고, 41칙에서도 행복한 상황에서는 벗의 진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64칙에서도 ‘잘나갈 때[榮時]’가 아니라, ‘근심스러울 때[患時]’에 오히려 스스로 오는 벗이 진정한 벗임을 강조한다.¹⁸⁾

18) 여기서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벗을 맺는 이유와 급하고 어려울 때 벗이 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교우론』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 | |
|--|
| <p>3. 서로 의지하고 돕는 것이 벗을 맺는 이유다.(相須相佑，爲結友之由.)</p> <p>27. 내가 나의 참된 벗이라면 나를 마음으로 아끼고, 나를 물건으로 아끼지 않는다.(爾爲吾之眞友，則愛我以情，不愛我以物也.)</p> <p>29. 벗의 물건은 모두 공유해야 한다.(友之物，皆與共.)</p> |
|--|

4. 화(化), 지심(知心), 군자지교(君子之交)

공자가 말하였다. “선한 사람과 같이 거처하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곧 더불어 향기와 동화되고, 선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거처하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냄새와 동화되나니, 단새(丹雘)를 지니면 붉어지고 옷(漆)을 지니면 검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더불어 거처하는 자를 삼가느니라.”¹⁹⁾

《가어(家語)》에 말하였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윤택함이 있고, 무식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그 냄새가 풍겨지느니라.”²⁰⁾

『명심보감』 「교우편」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선인(善人) 또는 호인(好人)과 거처하거나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문장 모두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가져온 것인데, 교우(交友) 또는 벗(友)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도 공통적으로 교우 관계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교우론』에서 관련된 두 개의 문장을 볼 수 있다.

67. 물감가게에서 살며 물감 만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염색하는 데 가까이 가면 자기 몸을 더럽힘을 면하기가 어렵다. 악한 사람과 교유하여 늘

19) 子曰，與善人居，如入芝蘭之室，久而不聞其香，即與之化矣。與不善人居，如入鮑魚之肆，久而不聞其臭，亦與之化矣。丹之所藏者，赤，漆之所藏者，黑，是以，君子，必慎其所與處者焉。

20) 家語云，與好人同行，如霧露中行，雖不濕衣，時時有潤，與無識人同行，如廁中坐，雖不污衣，時時聞臭。

그 추한 일을 듣고 보면 반드시 이를 익혀 본심을 더럽히고 만다.²¹⁾

69. 벼를 사귀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의 선함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내가 본받아 이를 익히고, 나의 선함이 그보다 나오면 내가 이를 교화시킨다. 이는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니, 두 가지가 서로의 바탕이 된다. 그의 선함이 본받아 익히기에 부족하거나 그의 선하지 않음이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무엇 때문에 온종일 서로 놀며 시시덕거리면서 한갓 시간만 낭비한단 말인가?²²⁾

67칙은 악한 사람과 사귀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고 있고, 69칙은 벼의 선함이 부족하거나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와 사귀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질문한다. 물론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서술되는 ‘책선’과도 연결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가득하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었고,

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동양 우정론의 오랜 전통에서 ‘지기(知己)’는 ‘관포지교(管鮑之交)’ 또는 ‘지기지우(知己之友)’라는 사자성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심보감』 「교우편」의 네 번째 문장에서는 ‘지심(知心)’ 즉, 마음을 알아주는 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21) 居染塵，而狎染人，近染色，難免無污穢其身矣。交友惡人，恆聽視其醜事，必習之，而浼本心焉。

22) 交友之旨，無他，在彼善長於我，則我效習之，我善長於彼，則我教化之。是學而即教，教而即學，兩者互資矣。如彼善不足以效習，彼不善不可以變動，何殊盡日相與遊謔，而徒費陰影乎哉？

2. 벗은 나와 비록 두 몸으로 있지만, 두 몸 안에 그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友之與我，雖有二身，二身之內，其心一而已。

17. 더불어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 펴보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나를 아는 벗이 된다.

可以與竭露發予心，始爲知己之友也。

『주역(周易)』 「계사전」 상 8장의 ‘이인동심(二人同心)²³⁾과 같이 ‘동심’을 강조하는 전통도 있지만, 2칙은 ‘두 몸(二身)’에 대비되는 ‘일심(一心)’이 우정의 기초임을 드러내고, 17칙은 마음과 관련하여 ‘지기지우(知己之友)’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군자의 사귀는 담박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귀는 달기가 단술과 같으니라.

君子之交，淡如水，小人之交，甘若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논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식인데, 『명심보감』 「교우편」의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담박한 물과 달콤한 술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6. 실행하는 군자는 기이한 원수가 없고, 반드시 훌륭한 벗이 있다.
有爲之君子無異仇，必有善友。

62. 군자가 벗을 사귀기는 어렵고, 소인이 벗을 사귀기는 쉽다. 어렵게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가 어렵고, 쉽게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도 쉽다.

23) 子曰，君子之道，或出或處或默或語，二人同心，其利斷金。

君子之交友難，小人之交友易。難合者，難散；易合者，易散也。

군자는 유교 전통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하는데, 『교우론』에서는 우정과 관련하여 단 두 번 등장할 뿐이다.²⁴⁾ 6칙에서는 ‘선우(善友)’를 반드시 가진 군자를 말하고, 62칙에서는 군자가 벗을 사귀는 것이 어렵지만, 어렵게 만난만큼 헤어지기도 어렵다고 설명한다.

III. 『소학』 「붕우지교」와 『교우론』

1. 책선(責善), 선도(善道)

91장. 맹자가 말하였다. “선을 권면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도리이다.”²⁵⁾
孟子曰，責善，朋友之道也。

92장. 자공이 벗을 사귀는 일을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마음을 다해 일러 주고, 좋은 말로 인도하되,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子貢問友，孔子曰，忠告而善道之，不可則止，毋自辱焉。

『소학』 「명륜편(明倫篇)」은 오륜 순서대로 문장들을 배열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붕우지교(朋友之交)」는 89장부터 99장까지 1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붕우지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붕우 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서 ‘책선(責善)’과 ‘선도(善道)’를 제시한다. 91장은 맹자가 말한 ‘책선’이, 92장은 공자가 자공에게 말한 ‘선도’가 핵심어인데, 두 가지

24) 70칙에서 “엄숙하구나, 군자여! 엄숙하구나, 군자여!(嚴哉君子，嚴哉君子.)”로 등장하긴 하지만, 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사용되진 않았다.

25) 주희·유청지, 이충구 외 역주, 『소학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9), 189. 이하 『소학』의 모든 번역문은 이 책을 인용한 것이다.

모두 봉우지도(朋友之道) 또는 우도(友道)로써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다. 책선과 선도는 곧 직언(直言) 또는 간언(諫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직언 또는 간언을 강조하는 『교우론』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19. 바른 벗은 늘 따르는 벗이 아니고, 또한 항상 거스르는 벗도 아니다. 이치에 맞을 때는 따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거스른다. 그래서 곧은 말만이 홀로 벗의 책무가 된다.

正友不常順友，亦不常逆友。有理者順之，無理者逆之。故直言獨爲友之責矣。

20. 벗과 사귀는 것은 의사가 질병을 대하는 것과 같다. 의사는 진실로 병자를 아껴서 반드시 그 병을 미워한다. 의사는 병을 구하려고 그 몸을 다치게 하고, 그 입을 쓰게 한다. 의사가 병자의 몸을 그저 두지 않는데, 벗이라는 사람이 벗의 악함을 그저 두고 보아서야 되겠는가? 바른말로 간하고 또 간해야 한다(諫之，諫之)! 어찌 그 귀에 거슬릴까 봐 근심하고, 어찌 그가 이마를 찌푸릴 것을 두려워한단 말인가?²⁶⁾

38. 지금 세상에서 벗은 이미 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는 자는 아양을 떠난다. 그렇다면 다만 원수라도 남겨두어 내가 참된 말을 들어야겠다.

今也，友既沒言，而諂諛者爲佞。則惟存仇人以我聞眞語矣。

60. 대저 지금은 어떤 때인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벗이 생기지만, 곧은 말은 원망을 낳는다.

夫時，何時乎？順語，生友；直言，生怨。

26) 交友如醫疾然。醫者，誠愛病者，必惡其病也。彼以揀病之故，傷其體，苦其口。醫者，不忍病者之身；友者，宜忍友之惡乎？諫之，諫之！何恤其耳之逆，何畏其額之蹙？

97. 서양의 한 옛 왕이 일찍이 한 선비를 벗으로 사귀어, 도읍 안에서 후하게 대접하며 그를 지혜롭고 어진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날이 오래 지났는데도 간언을 올리는 것(陳諫)을 보지 못하자, 그를 사절하며 말했다. “짐도 사람이니 능히 허물이 없을 수가 없소. 그대가 이를 보지 못했다면 지혜로운 선비가 아니고, 보고서도 간하지 않았다면(非諫) 어진 벗이 아닐 것이오.” 예전 왕은 허물을 간하지 않았다 하여 이와 같이 했는데, 만약 요즘의 글로 허물을 꾸미는 자와 만났더라면 마땅히 어떠하였겠는가?²⁷⁾

벗 사이에 책선과 선도를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언(直言)’ 또는 ‘진어(眞語)’이다. 특히, 군신 간에서도 우정을 나눈 경우 ‘진간(陳諫)’과 ‘비간(非諫)’을 기준으로 지혜롭고 어진 벗으로 구분하였다. 이것들은 결국 벗의 ‘선함’을 지켜주는 것인데, 유사한 주제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23. 벗이 나를 선하게 하는 바가 없다면 나를 해치지 않는 원수와 다를 바 없다.

友人無所善我，與仇人無所害我，等焉。

33. 벗의 악함을 참아주는 것은 그의 악을 가지고 자기의 악으로 삼는 것이다.

忍友之惡，便以他惡爲己惡焉。

2. 익자삼우(益者三友)

94장. 유익한 벗이 세 가지가 있고 손해가 되는 벗이 세 가지가 있으니, 정직한 이를 사귀며, 성실한 이를 사귀며, 보고 들음이 많은 이를 사귀면 유익

27) 西土之一先王，曾交友一士，而腆養之于都中，以其爲智賢者。日曠，弗見陳諫，卽辭之，曰：“朕乃人也，不能無過，汝莫見之，則非智士也，見而非諫，則非賢友也。”先王弗見諫過且如此，使值近時文飾過者，當何如？

하고, 행동이 편벽된 이를 사귀며, 아첨을 잘하는 이를 사귀며, 말재주를 부리는 이를 사귀면 손해가 된다.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소학』 「붕우지교」의 여섯 번째 문장 94장에서는 유익한 벗의 세 종류와 손해 되는 벗의 세 종류를 들면서, 유익한 벗은 ‘직(直)’하고, ‘양(諒)’하고, ‘다문(多聞)’한 벗이고, 손해되는 벗은 ‘편벽(便辟)’하고, ‘선유(善柔)’하고, ‘편녕(便佞)’한 벗이라고 설명한다. 벗에 관한 다소 평면적인 구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교우론』에서는 벗이 있는 것 그 자체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11. 근심이 있을 때, 나는 다만 벗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쁘다. 하지만 근심스럽거나 기쁘거나 어느 때인들 벗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근심스러울 때는 근심을 덜어주고, 기쁠 때는 기쁨을 더해준다.

在患時, 吾惟喜看友之面. 然或患或幸, 何時友無有益? 憂時減憂, 欣時增欣.

37. 벗이 세상에 유익한 점이 재물보다 크다. 재물을 아껴서 재물 자체를 위하는 사람은 없지만, 벗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벗을 위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이다.

友之益世也, 大乎財焉. 無人愛財爲財, 而有愛友特爲友耳.

65. 세간의 물건은 각각은 쓸모가 없다가, 함께해야 비로소 유익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라고 어찌 홀로 이와 같지 않겠는가?

世間之物, 多各而無用, 同而始有益也. 人豈獨不如此耶?

81. 벗의 유익함을 알아, 문을 나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한 사람의 새 벗과 사귀기를 꾀한 뒤에 집에 돌아와야 한다.

知友之益，凡出門會人，必畧(도)致交一新友，然後回家矣.

위 네 문장은 벗의 유익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유익한 벗을 만나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정을 수단으로 보는 것의 위험성과, 벗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의 대처법, 이해관계로 인해 우정이 깨지는 것을 경계하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28. 벗을 사귄데 홀로 자기를 이롭게 할 줄만 알고, 다시 그 벗에게 보탬이 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는 장사꾼일 뿐이니 벗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交友使獨知利己，不復顧益其友，是商賈之人耳，不可謂友也.

39. 설령 내가 벗에게 피해를 보았다하더라도, 다만 자기의 피해를 안타까워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벗으로부터 발생한 것을 더욱 안타까워해야 한다.

設令我或被害於友，非但恨己害，乃滋恨其害自友發矣.

63.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잔단 이해에 걸려 마침내 원수가 되는 것은 그 사귄데 바른 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귄데 이미 바르다면 이익을 나눌 수 있고 손해도 함께할 수가 있다.

平時交好，一旦臨小利害，遂爲仇敵，由其交之未出於正也. 交既正，則利可分，害可共矣.

3. 우기덕야(友其德也)

95장. 맹자가 말씀하셨다. “〈친구를 사귄데 있어〉 연장자임을 내세우지 말며, 존귀함을 내세우지 말며, 형제를 내세우지 말고 사귀어야 한다. 친구란 그 덕을 사귀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不挾長，不挾貴，不挾兄弟而友，友也者，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소학』 「봉우지교」의 일곱 번째 문장 95장 역시 『맹자』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덕을 벗한다(友其德也)’는 것이다. ‘연장(長)’, ‘존귀(貴)’, ‘형제(兄弟)’ 등의 외적인 것을 내세우지[挾] 말고, 내면의 덕을 벗하라는 충고이다. 덕과 관련된 충고는 『교우론』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우선 ‘덕(德)’이 직접 사용된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18. 덕과 뜻이 비슷해야 그 우정이 비로소 단단해진다.

德志相似，其友始固。

30. 벗 사귀는 귀하고 천함은 사귀는 바의 뜻에 달려 있을 뿐이다. 다만 덕에 바탕을 두고 서로 벗을 삼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몇 쌍이나 있겠는가?

交友之貴賤，在所交之意耳。特據德相友者，今世得幾雙乎？

61. 그 사람의 벗이 숲과 같이 많은 것을 보고서 그 덕이 성대함을 알고, 그 사람의 벗이 새벽 별처럼 드문 것을 보고 그 덕이 각박한 것을 안다.

視其人之友如林，則知其德之盛，視其人之友，落落如晨星，則知其德之薄。

90. 영원한 덕은 영원한 벗의 훌륭한 양식이다. 무릇 사물은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싫증 내지 않음이 없다. 오직 덕만은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덕이 원수에게 있더라도 오히려 아낄 만한데, 하물며 벗에게 있음에랴!

永德，永友之美餌矣，凡物無不以時久，爲人所厭，惟德彌久，彌感人情也。德在仇人，猶可愛，況在友者歟！

맹자의 심성론 체계에서 덕은 본성(性)과 같은 층위에서 이해되는데, 여기서는 우정이 덕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18칙과 30칙에서는 ‘뜻[志/意]’과 덕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추가적으로 덕이 언급되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70. 가령 어떤 사람이 천주의 도리를 독실히 믿지 않고, 게다가 덕을 닦은 것이 아직은 위태로워서, 좋은 것은 내보이고 추한 것은 감추어, 마음이 떨려 결단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에 있어 의심나는 것을 쪼개어 풀고, 그 덕을 편안히 복돋워서 장차 실추하는 것을 구하는 꾀는 좋은 벼를 사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대개 내가 자주 듣고 자주 본 바가 가슴속에 점점 스며들어 시원스럽게 깨닫게 되니, 진실로 살아 있는 방법으로 나를 선으로 권면하고 나무라는 것과 같다. 엄숙하구나, 군자여! 엄숙하구나, 군자여! 때때로 비록 말이 미치지 못하고, 성난 기색을 더하지 않더라도 또한 덕의 위엄으로 선하지 않은 행동을 막음이 있도다!²⁸⁾

72. 벼이란 서로 칭찬하는 예의를 베풀기는 쉬워도, 서로 벼의 잘못을 견디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벼는 모두 자기를 칭찬하여 기리는 것에는 감동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참아 견디는 덕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왜 그럴까? 하나는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하나는 나의 단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友者, 相褒之禮, 易施也. 夫相忍友乃難矣. 然大都友之皆感稱己之譽, 而忘忍己者之德. 何歟, 一顯我長, 一顯我短故耳.

70칙에서는 ‘천주의 도리’를 믿지 않는 것과 ‘덕을 닦는 것(修德)’을 연결시키기도 했고, ‘덕의 위엄(德威)’을 예찬하기도 했다. 72칙에서는 대부분의 벼들이 ‘자기의 잘못을 참아 견디는 덕’을 잇는 것에 대해 한탄한다.

28) 使或人未篤信斯道, 且修德尙危, 出好入醜, 心戰未決於以剖釋其疑. 安培其德而揀其將墜? 計莫過於交善友. 蓋吾所數聞, 所數觀, 漸透於膺, 豁然開悟. 誠若活法, 權責吾於善也. 嚴哉君子! 嚴哉君子! 時雖語未及, 怒色未加, 亦有德威以沮不善之爲與!

4. 이우보인(以友輔仁), 형제(兄弟), 전교(全交)

89장. 증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글로 친구를 모으고, 친구의 선으로 나의 인을 돕는다.”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

『소학』 「명륜편」 「붕우지교」의 첫 번째 문장이다. 안처순의 「사제편」 중 〈붕우〉 편도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증자가 남긴 말로, 유교 전통에서 군자 우정론의 결정체이다. 여기서 핵심은 ‘벗으로써 인을 돕는 것(以友輔仁)’인데, 우정에서 ‘인(仁)’의 중요성은 「붕우지교」의 다섯 번째 문장에서도 강조된다.

93장. 공자(孔子)가 말씀하셨다. “그 나라에 거해서는 그 대부(大夫) 중에 어진 자를 섬기며, 그 선비 중에 인(仁)한 자를 벗하여야 한다.”

孔子曰 居是邦也事其大夫之賢者友其士之仁者

마땅히 『교우론』의 우정론에서도 유교 우정론의 핵심어인 ‘인’이 강조 될 것 같지만, 『교우론』 원문에서는 ‘인’ 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²⁹⁾ 대신 비슷한 의미로 ‘현우(賢友)’가 나타나는 68칙은 다음과 같다.

68. 내가 어쩌다 어진 벗을 만나서 비록 겨우 한 번 악수하고 헤어졌더라도, 일찍이 조금이나마 내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채워주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음이 없었다.

吾偶候遇賢友，雖僅一抵掌而別，未嘗少無裨補，以治吾爲善之志也。

개념상 ‘인우(仁友)’가 아니라 ‘현우(賢友)’로 표현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29) 원주에서 한 번 등장할 뿐이다.

보여지는 문장이다. 그러나 왜 『교우론』에서 유교의 가장 중요한 글자인 ‘인’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천주실의』의 용례들과 비교하여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90장. 공자가 말하였다. “친구 사이에는 정성을 다하여 자상하게 권면하고, 형제 사이에는 화목해야 한다.”

孔子曰, 朋友, 切切偲偲, 兄弟, 怡怡.

‘붕우지교’의 두 번째 문장이다. ‘절절시시(切切偲偲)’는 ‘정성을 다하여 권면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된 ‘책선’과 ‘선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형제간의 화목함(怡怡)에 주목하였는데, 『교우론』에서는 오히려 형제보다 벗의 나은 점을 강조한다.

36. 벗은 형제(昆倫)보다 가까우므로 벗이 서로를 형이라고 부르니, 형제보다 나은 것이 벗이다.

友於昆倫邇, 故友相呼謂兄, 而善於兄弟爲友.

50. 벗은 친족보다 오직 이런 점이 더 낫다. 친족은 능히 서로 친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벗은 그렇지 않다. 대개 친족이 친족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친족의 윤리(親倫)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벗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그 벗의 도리(友理)가 어디에 남아 있겠는가?³⁰⁾

36칙에서는 ‘곤륜(昆倫)’이 언급되고, 50칙에서는 친륜(親倫)이 언급되는데, 유교 전통에서 우정보다 형제 관계가 친족 윤리가 강조되었다는 배경에서 보면 ‘우정의 이치[友理]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급진적인 주장

30) 友於親, 惟此長焉. 親能無相愛親, 友者否. 蓋親無愛親, 親倫猶在. 除愛乎友, 其友理焉存乎?

으로 볼 수 있어 흥미로운 대목이다.

96장. 〈곡례(曲禮)〉에 말하였다. “군자는 남이 자신에게 호의를 다하기를 바라지 않고, 남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기를 바라지 않음으로써 사귀를 온전히 한다.”

曲禮曰, 君子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 以全交.

「붕우지교」의 여덟 번째 문장인 96장부터 마지막 99장까지 네 개의 문장은 모두 『예기』 「곡례(曲禮)」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96장만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귀를 온전히 함[全交]’이다. 온전함[全]이 나타난 『교우론』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84. 이미 벗을 맺었거든 서로 우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정은 한번 끊어지면 잠시 서로 붙일 수는 있어도 다시 온전해지기[復全] 어렵기 때문이다. 옥그릇에 붙인 곳이 있으면 보기에 나쁘고, 쉬 흩어지며, 쓸모도 적은 것처럼 말이다.³¹⁾

여기서는 한 번 끊어진 우정이 ‘다시 온전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옥그릇을 예를 들면서, 매우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정을 맺은 관계라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31) 友旣結成, 則戒一相斷友情. 情一斷, 可以姑相著, 而難復全矣. 玉器有所黏, 惡于觀, 易散也, 而寡有用耶?

IV.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명심보감』 「교우편」과 『소학』 「붕우지교」에 담긴 우정 관련 문장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과 비교함으로써 전통 동아시아 우정 담론이 어떠한 구조적·내용적 특징을 지니는지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명심보감』은 유·불·도 삼교 회통적 성격을 지녔으나 조선 중기 이후 유교적 문장에 집중되었고, 『소학』은 오륜의 이념을 토대로 초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교재로 활용되었다. 두 책 모두 사림파들이 중시하였기에 조선 우정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후대에 편찬된 『교우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교우론』은 서양 고전에서 추출한 우정론 문장들을 번역·편찬한 것으로, 기존 동아시아 우정 담론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으며 유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교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심보감』 「교우편」과 『소학』 「붕우지교」에서는 오래되고古, 공경하느(敬) 우정, 의리를 중시하는 우정, 궁극적으로 서로를 선(善)으로 이끌고 덕(德)을 함께 나누는 이상적 관계가 강조된다. 이는 의리와 도덕적 수양을 중핵으로 삼은 유교 전통 속에서 우정이 일시적 만족이나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는 인격 완성의 장(場)임을 보여준다. 둘째, 『교우론』 역시 진정한 벗이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며, 오랜 시간과 의리를 견뎌내고, 서로의 선함과 덕성을 복돋아 주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동아시아 우정론의 근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비록 『교우론』이 서양 문헌에서 비롯되었으나 동아시아 유교 전통 속 우정 담론과 자연스럽게 접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정이란 공식적·통시적 경계를 넘어 인간 본성에 기반한 보편적 윤리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우론』과 명·청대 중국 및 조선 후기 우정론 사이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추후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서양 우정론의 상호 조명 속에서 인간관계의 이상적 모델을 재발견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윤리적 인간관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安處順, 『思齊集』, 호남국학종합DB.
- 마테오 리치. 정민 역. 『서양 선비, 우정을 논하다』. 서울: 김영사, 2023.
- 범입본. 임동석 옮김, 『초간본 명심보감』.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 성백효 역주. 『명심보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0.
- 성해준. 『동아시아 명심보감 연구』. 서울: 문, 2011.
- 엄국화, 안재원. “안처순(安處順)의 『근사록(近思錄)』과 『사제편(思齊篇)』.” 『열상고전연구』 83(2024), 133-157.
- 엄국화. “기묘명현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우정론.” 『경학』 7(2024), 131-155.
- 이원창. “우정에 관한 그리스도교 인간학적 이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2.
- 주희 · 유정지. 이충구 · 김재열 · 황봉덕 · 이승용 역주. 『소학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9.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09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명심보감(明心寶鑑)』 「교우편(交友篇)」과 『소학(小學)』 「붕우지교(朋友之交)」에 제시된 우정론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교우론(交友論)』과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전통 우정 담론의 주요 주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명심보감』은 원래 유·불·도 사상을 회통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 유교 중심으로 읽혔고, 『소학』은 오류에 바탕을 둔 초학자용 유교 윤리 입문서로서 조선 사림과 지식인들에게 중시되었다. 두 책은 조선 우정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반면, 『교우론』은 서양 우정론 문장을 번역하여 동아시아 우정 담론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본 연구는 『명심보감』과 『소학』에 나타난 경(敬), 의(義), 책선(責善), 선도(善道), 덕(德), 인(仁) 등의 개념을 핵심 주제로 삼아 『교우론』 문장들과 비교·대조하였다. 그 결과 전통 우정론이 공경과 의를 토대로 덕을 길러주며, 어려운 시기에 참된 관계를 드러내는 지속적이고 도덕적인 우정을 중시함을 확인했다. 이는 『교우론』의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하여 동서양 우정 담론의 접점을 보여주며, 우정이 인성에 기반한 보편적 윤리 이상임을 재인식하게 한다.

주제어: 명심보감, 소학, 교우론, 우정론, 사제편
